

광양시장, 무소속-민주당 무주공산 차지 '혈투'

민주당 4명·무소속 4명 출사표...무소속 강세 지역 광양 경제 활성화·시민 행복 위한 각축...민주당 고심

정현복 광양시장의 제8회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 광양시장 선거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출마자 간 불꽃 대결이 예상된다.

6·1 지방선거 광양시장은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 김재유 전 보성부군수, 문선용 전 광양시장, 문양호 광양시의회부위원장,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학교총장, 신홍섭 전 전남도의원, 이용재 전 전남도회의장, 정인화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재무(62·민주당) 전남도체육회장은 그동안 선거 준비를 많이 해온 후보 중 한 명이다. 광양을 잘 아는 인물이라는 점을 자부하고 있다. 두 번의 낙선이 지역을 더욱 잘 아는 큰 경험으로 작용했다. 누구보다 시정을 잘 들여보고 이전 시장들의 행정 철학도 잘 알기 때문에 시정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김재유(71·민주당) 전 보성부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책이 우선 세울 계획이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탄소 저감 대책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공해방지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공공산후 조리원, 아동병원 유치 등 도입도 추진한다.

문양호(63·민주당) 광양시의회부위원장은 광양시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힘을 쏟는다. 광양에 KTX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서울-순천-광양, 부산-광

양 간 고속전철 운행으로 수도권의 자본과 인력을 끌어오고, 부산과 경상권의 자본·인력이 모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부흥이 빨라질 것으로 봤다.

이용재(60·민주당) 전 전남도지사는 광양시의 큰 그림을 주장했다. 동광양과 광양읍으로 분산된 도시를 결집하고 문화와 예술, 산업도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소 중심의 경제도시와 스마트 항으로 향하는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소속 예비후보들도 도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지수 향상 등 목표로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문선용(52·무소속) 전 광양시장당장은 시 행정조직을 인사권자가 아닌 시민을 바로 보는 조직으로 바뀌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광양시가 그동안 광양제철소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바라보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독자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정을 꿈꾸고 있다. 완벽한 기업도시화를 추진한다.

서장원(71·무소속) 전 광양보건대학교총장은 가정 먼저 대학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려대가 폐교된 만큼 보건대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웠다. 당선과 함께 마지막 공직 생활을 고향 광양을 위해 소신껏 일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을 위해 헌신을 다할 각오다.

신홍섭(63·무소속) 전 전남도의회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선대본부장을 지내는 등 선거 판세에 해박하다. 시민과 진정한 소통, 인구문제 극복, 잘사는 광양, 찾아오는 광양, 미래 30만 자족 도시의 기초를 닦는데 헌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양의 젊은 층과 여성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 중이다.

정인화(64·무소속) 전 국회의원은 여수부시장과 광양부시장, 국회의원을 지낸 자타공인 다크호스가 아닐 수 없다. 무소속 강세를 대표하는 주인공으로 불린다. 그런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그동안 쌓은 경험을 활용해서 광양에 대한 마지막 봉

광양시장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선거에 총신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광양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전남 지역과 달리 무소속 후보가 역대 3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광양시장 선거를 아쉽게 놓친 과거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민의 표심을 확실히 잡는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결정된 후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여부도 중요 변수로 떠오르는 등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심종섭 기자

담양군수, '3선 제한'에 현역 없는 무주공산 쟁탈전

현 군수 3선 연임 제한·치열한 깃발 쫓기 예상 분야별 전문가 출사표, 민주당 5명·무소속 1명

6·1 지방선거 전남 담양군수 선거는 최형식 현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에 따른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여러 인물들이 도전장을 내밀며 10여 년 넘게 군정을 이끌던 최 군수의 바통을 누가 이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담양군수 출마를 표명한 입지자는 김경오(62) 담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기석(67) 담양군의원, 박철홍(62) 전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이병노(62)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 최화삼(68)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신동호(65) 전남대 교수 등 6명이다.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인 신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입지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향후 경선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김경오 담양군의회장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지방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10여 년 간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현안에 밝다는 평가다. 3선 의원인 김 의장은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도 대표협의회 사무총장, 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김 의장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담양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기석 담양군의회원은 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군의회에 입성하기 전 30여 년 간 공직생활로 행정에 잔뼈가 굵었다. 초선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김 의원은 담양군 예산 절감 및 남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와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굵직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

장서며 지역민들의 신뢰를 쌓아왔다.

박철홍 전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정·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것이 장점이다. 9·10대 도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민선 3기 담양군수 비서실장, 민선 7기 담양군 참여소통담당관을 지냈다.

민주당 중앙당 및 전남도당에서 활동하며 다진 인맥은 경선 과정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위원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하는 데 공을 세워 일등공훈훈장을 받았다. 현재 담양미래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두 번째 역사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은 담양을 위해 한 평생 헌신한 '청렴한 일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직생활 기간 군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추진해 모범공무원표창(국무총리)과 홍조근정훈장(대통령)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지역발전대상 지역부분 대상을 받았다.

평소 외유내강 스타일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을 갖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경제에 특화된 인물이다. 지난 20여 년 간 새마을금고에 몸을 담으며 경제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4·5대 담양군의회원으로 활동한 이력과 현재 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 인지도도 높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최형식 군수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군민과 접촉점을 넓혀며 절치부심 두 번째 도전장을 준비하고 있다.

신동호 전남대 교수는 무공천·무보수·무소속 등 '3무(無)'를 강조하고 있는 유

담양군수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일한 무소속 입지자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가 3번째로,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군정을 이끌겠다는 각오로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다.

신 교수는 군민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군정, 군민을 위한 군정,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군정을 강조하며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